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I . 행사개요	1
II . 총 평	1
III .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3인)	4
③ 종합토론(참여자 전체)	9
④ 마무리	10
IV .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11
V .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3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

I.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1. 10. 12.(화), 14:00~16:00 / 예산군청 대회의실
- 참석 : 4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제 :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 ※ 신청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방한 일의원

II. 총평

- 2013년 도청 이전 후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충남 혁신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이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충청도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충남만의 특화된 환경과 에너지 중심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 및 이전논리 마련,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용여건 진단과 이전 공공기관 관련기업 지원 전략을 마련, 충남혁신도시와 주변지역간 산업, 교육·연구, 문화·관광, 교통 등 분야별 상생발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타 혁신도시와는 다른 충남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방향을 설정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힘써 나가야 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Ⅲ. 토론내용

① 주제발표(1인)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충남 혁신도시 성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먼저 충남혁신도시만의 차별화된 테마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공공기관을 유치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산학연과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개발과 기존의 1기 혁신도시와는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함.
- 작년 10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대전과 충남을 포함하여 현재 12개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음.
- 충남혁신도시는 기존의 혁신도시와는 차별화 되어야 하기에 올 초 충남은 “탄소중립”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논리를 만들었음.
- 충남의 산업구조는 ‘고탄소 산업’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국가 의제인 ‘탄소중립’과 먼 산업정책으로 반드시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이와 관련하여 테마를 설정한 것임.
-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의 발전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차등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17개 지역의 균형발전지표에서 충남은 13위로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원칙에 따라 타 광역시보다 많은 기관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경제질서 대전환시대에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핵심거점으로 충남혁신도시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함. 즉, 충남의 화력발전 조기폐쇄 및 에너지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테마로 관련 공공기관이 충남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함.

- 또한 기관별 이전기관 유치 논리를 개발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탄소중립클러스터와 연계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였음.
- 1기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해 보면 공공기관을 유치하더라도 기업유치 실적은 그리 탐탁치 않음.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내려오더라도 그 도시의 정주환경, 일자리 등에 따라 가족이 모두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이 유치되어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 올해 「한국판뉴딜 2.0」을 정부에서 발표하였는데 작년의 「한국판뉴딜 1.0」과 차별을 보이는 부분을 보면, 일자리창출 분야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들어가 있어 충남의 발전테마인 “탄소중립”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임.
- 내포신도시는 지역수요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수요창출형 도시로, 끊임없이 일자리창출을 해야 하는 숙명의 도시로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가 매우 필요함.
- 내포신도시를 1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려면 일자리 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공급이 필요하며, 기업친화도시로 조성하여야 함.
- 충남혁신도시를 기업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충청권 3개 경제자유구역(충남경제자유구역,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거점항만, 거점항공(서산항공, 청주공항)을 연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중간 초광역교통망을 통해 중국 산둥성과 연결하는 방안도 연구중임.
- 2020년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초유의

불균형사태가 발생함에 중앙정부 중심의 분산형 균형발전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효과적인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 육성을 통해 중심도시와 혁신도시가 연계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과 정부축을 보완하는 국토 동서축 강화를 통해 환황해권의 중심 충남혁신도시가 국제적·국가적 기능을 분담해야 하며,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의 지역화 선도모델을 충남이 개발하여 발전·산업·수송·생활 전 부분에 걸친 탄소중립 지역화를 위한 탄소중립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 이렇듯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 및 이전논리 마련, 혁신도시 주변지역(홍성, 예산)과의 상생발전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유도할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에서 이전기관만 지정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정보론(3인)

【육안수 충청남도 혁신도시정책과장】

- 혁신도시가 지정됐다고는 하나 「혁신도시법」에 따라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서 우리도는 ‘준비된 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정부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하였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을 금년내 마무리하고 내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정지구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주장하면서, 특히 ‘충남 소외’를 강조한 지속적인 공론화와 정책건의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 탄소중립, R&D, 문화체육을 중점 유치 기능군으로 설정하고 충남도 전 실과가 함께 나서서 방문홍보, 기관장면담, 기관초청 팸투어 등 긴밀한 우호적 관계의 공공기관 확보에 노력 중임.
- 그 밖에도,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공동대응을 위하여 도와 홍성군·예산군이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어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사업추진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도록 할 것임.
- 오용준 연구원이 발제하신대로 충남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2050 탄소중립 정책기조”를 충남이 앞장서기 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음.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한 축으로 충남혁신도시가 동서간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기반시설 및 산업·정주여건의 특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 정책발굴과 실현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충남도뿐만 아니라 예산·홍성군에서도 이전될 공공기관의 관련 산업이 충남혁신도시 주변에 포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함.
- 충남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람.

【이덕효 예산군청 기획담당관】

- 작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1년 동안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음. 다만 최근 총리님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봐서는 이달중에 어떤 식으로든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음.

-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효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과 연계한 민간기업 이전, 인구증가 및 지역물품 우선 구매 등으로 내포신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α 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재 예산군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부지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추진중에 있음.
 - 이를 위해 충청도와 함께 업무용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충청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R&D, 문화체육 등 3개분야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내포신도시의 확장성을 고려한 주변지역 연계개발 방안도 추진중에 있음.
-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군의원님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뵙고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혁신도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예산군 자체적으로 산업연구원에 공공기관 이전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에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홍보활동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총 26개 기관을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예산군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인 공공기관 유치 논리 개발중에 있음.
- 또한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수도권 공공기관에 예산군 홍보영상 및 예산소식지를 발송, SBS라디오 홍보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음.
-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방송광고 및 방문홍보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충남도, 충남연구원, 충남개발공사, LH 토지주택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임.

- 다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부의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선공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혁신도시에서 설치되고 있는 200억 내지 300억 규모의 (가칭) 내포복합혁신센터가 예산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그동안 내포신도시 불균형 해결을 위하여 예산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람.
- 아울러, “충청남도 4차종합계획”에 반영된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용역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 드림.
- 실무적으로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저희 군뿐만 아니라 충남도, 홍성군에서도 연락이 온다고 하시는데, 각 기관의 유치활동도 중요하지만 충남도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공공기관 지원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협의가 필요해 보임.
- 내포혁신도시의 관문이 될 “서해선 복선전철 삼교역사”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람.

【윤영모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 충남은 ‘탄소중립’을 큰 틀의 테마로 삼으신 것 같은데, 광주전남 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 등도 신재생에너지라던지 친환경에너지 등을 특화전략 발전을 추진하고 있기에 충남은

충남만의 강점을 더욱 부각해야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내포혁신도시를 위한 준비를 위한 마련이 필요하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중장기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함.

-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충남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고 공공기관과 연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충남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관련기업·기관이 혁신도시에 집적할 수 있는 여건, 창업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조성하여 내생적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우수인력 확보 여부는 기업입지 결정의 핵심요인이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대부분이 인력 채용 부문에서 불만족도가 높은 실정으로 충남혁신도시의 특화발전방향, 이전공공기관 및 유치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필요.
-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정착, 기업 유치,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한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방안 마련 필요. 특히 젊은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 중요하므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유치가 중요함.
- 혁신도시 육성 초기단계부터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주변지역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는 이미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혁신도시 발전재단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충남도 이에 대한 방안을 미리 준비한다면 타 혁신도시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단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3] 종합토론

-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지 1년이 다 되도록 후속조치가 없어 모두 다 궁금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열려 매우 기쁘게 생각함. 또한 오늘의 주제는 대선공약으로서도 채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됨.

- 오늘 이 의정토론회에서 도출되고, 건의되고, 이야기되는 모든 사항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에서 모두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고 공공기관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기를 바람.

[의견 : 조승만 의원,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

-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유치된 후에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득이나 누려야 될 것들이 예산군과 홍성군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충남도에서는 운영모 토론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미리 철저한 구상을 해 주길 바람.

- 내포혁신도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삼교역사 건립에 있어 기득권층의 이권 다툼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고 있어 예산군민은 서운함을 감출수 없음. 이에 서해선 복선전철 삼교역사 건립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의원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예산군의 노력이 필요함.

[의견 : 이송희,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윤영모 박사께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지역에 맞는 특화발전에 있어서는 좀 더 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의견 :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당장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에 집중하고 있지만, 충남연구원과 같이 대응전략을 상세하게 짜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혁신도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지식창업센터 설립 추진 및 타 공공기관 유치활동 등등 내포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의견 : 육안수, 충청남도 혁신도시정책과 과장]

- 충남혁신도시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예산군이 활성화 되고 발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

[의견 : 이덕효, 예산군 기획담당관]

- 기존의 10개 혁신도시에서 겪었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위주로 사전에 조금 더 준비해 달란 의미로 말씀드렸으며,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에 유치하는게 가장 급선무이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도 가장 발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로 거듭나길 바라겠음.

[의견 : 윤영모,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④ 마무리(방한일 의원)

- 충남 내포혁신도시로 지정된지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게 없어 모두가 답답한 심정임. 예산·홍성·충청남도가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아 한계를 느낌. 그러나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생취해야 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 또한 내포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총론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홍성이 같이 지지를 하나, 각론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음. 물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홍성군민도 혁신도시 발전에 적극 응원해 주고 함께 가야할 것임.
-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는 공공용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행정적 부분에 있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오늘 이 토론회의 좋은 내용이 충청남도 정책에 반영되어 내포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람. 또한 오늘 나온 정책들이 앞으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예산·홍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람.

IV.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 도출과제

- 충남만의 특화된 환경, 탄소중립 등 에너지 중심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 및 이전 논리 마련에 타 혁신도시와의 뚜렷한 차별성을 두도록 세밀한 논리개발에 집중 필요.

- 혁신도시 발전 과정에서 양 군에 성과를 나눔에 있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 유치 이전에 이익배분에 대한 세밀한 방안 마련이 요구.
- 혁신도시 발전성과(지방세 수입 증가분)를 주변지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가칭)혁신도시 상생발전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충남도, 시·군 등이 협의하여 ‘(가칭)충남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조기에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공공기관이 이전하였다고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유치,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구축이 필요(예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 결 과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충청남도는 국토교통부와의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져할 것을 제안.
- 공공기관 지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기업 유치에도 힘 쏟을 것을 제안.
-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이익 배분에 있어 공공기관 유치 전 양 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양 군의 의견을 모아 조례(예: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충남도·예산군·홍성군의 각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충청남도 혁신도시정책과는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충청남도의회와의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함.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방한일 의원)



참석자 기념촬영



토론모습(좌장, 발제자, 토론자)



발제 모습(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40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37건	
1	뉴시스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 특화전략 필요	'21.10. 12.
2	디트뉴스24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에너지분야' 공략	"
3	뉴스1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의정토론회 개최	"
4	뉴스밴드	방한일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위한 의정토론회	"
5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6	충청신문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에너지분야 특화 전략 필요	"
7	아시아뉴스통신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8	시티저널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9	백제뉴스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0	특급뉴스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1	충청메시지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2	굿뉴스365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3	뉴스앤충청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4	C뉴스 041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5	충청데일리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6	세계타임즈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7	온양신문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8	뉴스매거진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19	충청헤럴드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에너지 특화전략 필요	"
20	브레이크뉴스	충남도의회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특화된 전략 필요"	"

21	국제뉴스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의정토론회	〃
22	충청탑뉴스	충남도의회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23	시사통신	충남도의회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수립 의정토론회 개최	〃
24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수립 의정토론회 개최	〃
25	충남신문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26	데일리연합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27	케이에스피뉴스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28	충남인터넷뉴스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29	위클리오늘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30	경인투데이뉴스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31	타임뉴스	충남도의회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32	우리들뉴스	공공기관 유치 차별화 전략 필요	〃
33	일간투데이	방한일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의정토론회	'21.10.13.
34	충남시대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21.10.13.
35	시사터치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특화전략 필요	'21.10.14.
36	아시아투데이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도의 특화전략 필요	'21.10.14.
37	예산뉴스무한정보	내포혁신도시를 '탄소중립거점'으로	'21.10.18.
지면보도		3건	
38	투데이충남	공공기관 유치 차별화 전략 필요	'21.10.13. 종합02면
39	금강일보	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위한 전략 필요	'21.10.13. 정치04면
40	충남일보	내포 공공기관 유치추진 차별화 전략 없다	'21.10.13. 종합01면

공공기관 유치 차별화 전략 필요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의회는 12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수립'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을 모

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방 의원이 좌장을,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 예산군 이덕효 기획담당관, 국토연구원 운영모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용준 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서해안 대

기오염 문제, 탄소중립, 환경수도 등 충남만의 특화된 환경과 에너지 중심의 내용으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과 이전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친화도시로 조성할 것 등을 강조했다.

내포/이예슬 기자

237 X 83 mm

금강일보

2021년 10월 13일 (수)

정치 04면

“道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위한 전략 필요”

방한일 도의원, 의정토론회서 강조

충남 내포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에너지 분야 특화 등 치밀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수립'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국민의힘·예산1)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방 의원이 좌장을, 충남연구

원 오용준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 예산군 이덕효 기획담당관, 국토연구원 운영모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용준 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서해안 대기오염 문제, 탄소중립, 환경수도 등 충남만의 특화된 환경과 에너지 중심의 내용으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과 이전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140 X 91 mm

내포 공공기관 유치추진 차별화 전략 없다

‘혁신도시 지정 1년’ 전략수립 의정토론회 개최
“기업유치·환경·에너지 등 특화대책 마련 필요”

충남·대전 등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오리 무중인 가운데 충남 내포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수립’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방 의원이 좌장을,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 예산군 이택효 기획담당관, 국토연구원 윤영모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용준 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타시·군과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서해안 대기오염 문제

를 해결해야

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내포신도시에는 수요 창출형 도시로, 혁신도시의 성패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이 기업이 주변 산화연과 협력해 고용을 얼마나 증대시킬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기업친화도시로 조성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선택적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도시 특화발전예 부합하는 기업유치 및 창업촉진 전략 수립 ▲우수 인재양성 및 지역대학 협력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 ▲주변지역과 혁신도시 발전성과 공유 ▲지자체·대학·연구기관·기업·이전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토대로 충남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방 의원은 “2013년 도청 이전 후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충남혁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지정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명균 기자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남의 특화된 전략 필요”

- 방한일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 에너지 분야 등 특화전략 강조…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제언도 -

충남 내포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에너지 분야 특화 등 치밀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내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전략수립’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방 의원이 좌장을,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 예산군 이덕효 기획담당관, 국토연구원 윤영모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용준 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서해안 대기오염 문제, 탄소중립, 환경수도 등 충남만의 특화된 환경과 에너지 중심의 내용으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과 이전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연구원은 “내포신도시는 수요창출형 도시로, 혁신도시의 성패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이 기업이 주변 산학연과 협력해 고용을 얼마나 증대시킬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기업친화도시로 조성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선제적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도시 특화발전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및 창업촉진 전략 수립 ▲우수 인재양성 및 지역대학 협력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 ▲주변지역과 혁신도시 발전성과 공유 ▲지자체·대학·연구기관·기업·이전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토대로 충남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방 의원은 “2013년 도청 이전 후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충남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지정’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